

‘문열고 냉방’ 단속은 하지만… 효과는 글쎄

“옆 가게와 경쟁” 업주 참여도 낮고

공무원들은 장마철 평계 단속 시늉만

지난해 광주·전남 과태료 부과 한건도 없어

18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 냉방’ 영업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지만 흥보 부족에 업주들의 무관심 등이 맞물리면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특히 지난해 요란을 떨면서도 개문 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힘든 업체가 적지 않은 만큼 “설마, (단속을) 하겠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업주들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는 18일 정부의 에너지제한 조치로 오는 8월 30일까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이 금지된다며 밝혔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까지 대형건물의 실내 온도를 26도로 규제한다는 규정도 올해부터 계약전력 100㎾ 이상(3~4층 건물) 6만8000개소로 확대해 시행되며 불법이다. 위반하는 업체는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주시를 비롯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이날 지역내 주요 업소에 대한 지도에 나섰다. 당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각 자치구는 영업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위주로 추진한 뒤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4개 자치구는 이날 종로, 송정동, 봉산동, 전남대 후문 일대 600여곳을 돌며 ‘개문 냉방 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개문 냉방을 하고 있는 14곳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단속반이 흥보 전단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뒤에야 뒤늦게 출입문을 닫는 영업장이 속출했다.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총장로의 한 상인은 “다음달 1일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손님을 끌기 위해 하는 일인데 선뜻 참여하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18일,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금남로 일대 점포에서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등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속 첫날이지만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개문 냉방 영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서구는 단속에 나서지 않았고 광산구도 도중 철회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인원이 한정된 탓에 ‘개문 냉방’ 영업을 하다가도 인근 영업장의 단속 소식을 접한 뒤 문을 닫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단속에 나

서 막상 과태료를 처분을 내리게 되면 상인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성폭력 지속 관심 2차 피해 예방”

전남 온 이성한 경찰청장 ‘4대악 근절’ 간담회

이성한 경찰청장이 18일 전남 지방경찰청을 방문, 4대악(惡)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상한 청장은 이날 오전 전남 청내 남도마루에서 국민과의 눈 높이 치안 간담회를 주제하고 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피해자 보호와 단속을 드는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수 한 아동센터 근무자는 “지난해 발생한 나주 성폭행 사건 피해 어린이의 사진이 SNS를 통해 나돌더니”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가정까지 따뜻하게 품는 역할에 더 충실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정 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의 경우 그 사건 배후에 숨겨진 아이 학대 등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이에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권리

를 구제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폭력 위험에 노출된 취약 가정에 경찰이 관심을 두고 있다면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또 “이런 자리를 통해 보호단체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하자”고 독려했다. 이 청장은 간

담회를 마치고 전남경찰청 117센터, 나주 다사피출소 등을 방문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올 입학식도 못치려

28개교는 고작 1명

전남교육이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배출 학생이 없어서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학교가 36곳에 달했다.

전국 121개 학교의 29.8%로 가장 많다. 입학생이 1명에 그친 전남 지역 학교도 28곳이나 됐다.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교 499곳 중

262곳(52.5%)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였다. 강원 53.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섬지역인 신안군의 경우 올해 초등

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학생이 1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전국 초등학교는 121곳이었다.

이 중 전남지역은 신안 팔금초·완도 생영초 등 36곳으로 29.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입학생이 단 1명에 그친 초등학교도 28개교나 됐다.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교 499곳 중 262곳(52.5%)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였다. 강원 53.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섬지역인 신안군의 경우 올해 초등

학교 평균 입학생이 4명에 불과했다. 완도군도 15명에 그쳤다. 전남지역 평균 입학생 수는 30명으로, 지난 2010년 39명보다 무려 9명이 줄었다. 전국 평균은 71명이다.

광주지역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학교는 없었고,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7곳에 그쳤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 광산구로 5048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신안군으로 146명에 그쳤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올린다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평일 진료비의 1.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

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 대(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와 토요일 오후(오후 1시~다음날 오전 9

시)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으며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다.

그러나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환자가 집 주변에 문을 연 의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진료에도 기본진찰료를 가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FDA

국제품질
ISO 9001 인증

국제의료기기
ISO 13485 인증

CE
0120
유럽공통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세계적 권위의 인증/GMP

문의전화 (062)225-5110

세계적 권위의 인증/GMP

문의전화 (061)752-8845

세계적 권위의 인증/GMP

문의전화 (061)752-8845

세계적 권위의 인증/GMP

문의전화 (061)752-8845

전국
점망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7

47